

순천시, 북한과 생태교류 협력 적극 추진

람사르 회원국 예정 北과 흑두루미 서식지 보전 네트워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생태관광 프로그램 공동 개발도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의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가 5월 람사르 협약 회원국 가입이 확정적인 북한과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주목된다.

순천시는 20일 북한의 람사르 협약 회원국 가입이 예정됐고 금강산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를 신청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7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서 개최되는 유네스코 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예정대로 순천시 전역과 북한 금강산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되면 본격적인 교류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판단했다.

◀북한과 네트워크 형성 순천만 흑두루미 등 철새 보호구 보전 협력=순천시는 북한의 문덕과 라선의 철새 보호구 보전을 위한 서식지 보전 프로젝트 등 교류·협력에 집중한다.

이번에 북한이 람사르 습지로 등재하는 평안남도 청천강하구 문덕 철새보호구와 함경북도 두만강하구 라선 철새보호구는 흑두루미를 비롯한 재두루미와 개리, 알락꼬리마도요 등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새의 중간기착지이자 월동지다.

북한에서 흑두루미는 깃별과 친숙해서 깃두루미라 불린다. 특히 평안남도 문덕 철새보호구는 순천만과 같이 깃별이 잘 발달해 흑두루미가 월동지와 번식지를 이동하는 시기에 순천마리가 관찰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순천만에서 월동을 마친 2000여마리의 흑두루미는 국경을 넘어 이미 북한과 생명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순천시는 앞으로 국제두루미재단과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등 국제기구와 연

계해 민간자원의 교류협력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는 2016년 순천시가 유치해 순천만국가정원 습지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람사르 협약 산하 국제기구이다. 동아시아 지역에는 17개 회원국이 활동하고 있다.

국제두루미재단과 순천시, 철원군, 고양시는 다음달 두루미 서식지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향후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의 두루미 서식지 보전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할 예정이다.

북한의 안변과 문덕, 라선 등 생태적 공동 가치를 가진 지역에 세계적 습지로 거듭난 순천만 주민이 직접 기금 '친환경 법씨'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한반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생태관광 프로그램' 공동 개발=오는 7월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주관으로 중국에서 개최하는 '황해 접경지 습지관리자 교육 워크숍'에서는 한국과 중국, 북한이 습지를 공동관리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 국제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유네스코가 선정한 다.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순천시는 시 전역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등재신청서를 지난해 9월말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했다. 지난 2월 파리본부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제자문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오는 7월 제30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사업(MAB)위원회 국제



순천만 습지



순천만 흑두루미

조정이사회의 승인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때 북한의 금강산과 그 주변지역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순천시는 또 금강산과 그 주변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확정되면 북한과 함께 '한반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

발한다는 계획이다.

조중훈 순천시장은 "북한 등 국제적 생태 교류사업을 통해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면 그 길에 앞장 서는 것이 생태도시 순천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과의 교류협력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2018정원산업디자인전' 내달 6일 개막

순천만정원서 22일까지 열려

IT 기반 미래정원 모델 제시

정원산업과 정원문화를 꽃피우는 '국가정원 1호' 순천만국가정원에서 내달 6일부터 22일까지 '2018 정원산업디자인전'이 열린다.

순천시는 '함께 숨 쉬고 살아가는 정원'과 '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 2018 정원산업디자인전이 4차 산업혁명 시대 IT를 기반으로 한 미래정원의 모델을 제시해 반려식물

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미래정원의 '디자이너 초이스'는 다양한 분야의 작가가 참여해 거실, 욕실, 베란다 등 우리 일상공간을 반려식물과 함께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낸 전시공간이다.

이 곳에서 인공지능을 탑재한 잔디요정 AI로봇 도슨트가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미래정원은 미래의 숲을 주제로 비오 토키아, 첼시플라워 은상수상 황혜정 작가

의 스마트정원, 안전인식을 통해 식물정보를 제공하는 AR앱, 미래 정원관련 직업체협동(키자니아식 체험) 등 이날로 감성의 정원을 테크놀로지와 결합해 새로운 정원의 모습을 연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원박람회장 서문 광장에서 스토리가 있는 정원 마켓이 운영된다.

5개의 테마로 꾸며진 마켓에는 60여 업체가 참여해 정원산업 용품을 전시 판매하며, 한·중·일 정원용품 교류전도 함께 진행된다.

정원산업디자인전은 내달 6일 개막당일 동천갯벌공연장에서 뮤지컬 스타 차지연의 '뮤지컬 갈라쇼'를 시작으로 17일간 진행된다.

4월 9일부터 10일까지 숲 정원 활성화를 위한 콘퍼런스가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입체정원관에서 열리며 농가와 조경판매업체를 연결해주는 비즈니스데이도 진행된다.

멕시코, 몽골, 람사르 정원 등 세계정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2018 미술선 개띠를 모티브로 한 '행복투게더 +(플러스)' 장미정원이 새 단장을 마치고 관람객을 맞이한다.

한편 내달 8일에는 2018 정원산업디자인전을 기념하는 KBS열린음악회가 호수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다. 또 1억송이 봄꽃 축제 '정원에 놀러와' 부제로 4월 6일부터 5월 22일까지 동문 일원에서 펼쳐진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오늘 개관

순천 지역 유림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순천선비문화체험학습관(사진)이 21일 개관한다.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선비문화체험학습관은 금곡길 순천향교 뒤편에 건축돼 본격적인 전통문화 체험과 선비 정신을 배우는 장소로 활용된다.

개관식은 지역유림, 도·시의원 및 기관단체장,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악단의 지신밟기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된다.

금곡길 순천향교 인근에 있는 순천선비문화체험학습관은 연면적 460㎡, 지상 2층 규모로 총 2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2016년 12월 착공해 2017년 12월 27일에 준공했다.

1층에 사무실·전통체험실·전시실이, 2층에는 강의실인 선비학당과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 예절교실·한문교실·서예교실·인성교육 등 6개 수업이 진행된다. 현재 124명의 수강생이 참여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전통예절을 체험하고 고전과 한자 교육을 통해 인문학을 접하며 유교 사상 등을 통해 올바른 인성교육을 배우게 된다"고 말했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순천상의,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확대

순천상공회의소(회장 김종욱)가 올해 지역기업들의 고용안정과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20일 순천상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2018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5개 사업이 선정되며 국비와 지방비 16억여원을 확보했다.

5개 사업은 ▲취업총괄 지원을 통한 율촌·해룡산업단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사업 ▲율촌·해룡산업단지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정원문화산업 일자리창출사업 ▲에너지 ICT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고용의 질 제고 프로그램 등이다.

율촌·해룡산업단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사업은 근로자들의 출·퇴근시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대형버스 4대를 운행

하고, 청·중장년층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현장형 맞춤형 기술인력을 양성해 취업을 지원한다.

율촌·해룡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 임차비용을 1인당 최대 월3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원문화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정원센터와 연계한 정원조성, 정원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해 취업을 돕는다.

순천상의 관계자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전남도와 순천시, 순천상의, 양대 노총 등의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 최상의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순천시, 다음달부터 난임 고민 가정 한방치료 지원

순천시가 다음 달부터 난임으로 고민하고 있는 가정에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한다.

20일 순천시에 따르면 한방 난임치료 지원대상자는 최근 지역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만 44세 이하 여성 중 기준중위소득 200%(2인 가족 기준 569만4000원) 이하인 경우다.

신청기간은 오는 23일까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지참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77개소 한의원(순천시 16개) 중 신청서에 본인이 희망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한의원은 한약 및 침구치료(4개월) 후 상담을 통한 추적검사(6개월)를 실시하며, 1인 지원액은 172만원(한방치료비)으로 개인 부담금은 없고, 혈액검사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완벽방수

내구성보강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무료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IPALG 트라이슈머 아파트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난연소재

완벽한방수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내구성UP

맞춤디자인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검색창에 '이파엘지' |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 (062)511-0444

전남 (061)284-0485

H.P 010-6603-0405

복합 (061)683-0485

여수 (061)726-0482

순천 (061)795-0485

6년무상 A/S보장 정기점검